

강기정 3억 새정치 1위... 권은희 1700만원 최하위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전체 1위는 '친박' 김재원

1인당 평균 1억6860만원

제19대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의 합계가 약 50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억686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국회의원 상위 10위 중 8명이 새누리당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를 공개했다. 국회의원 299명의 후원금 모금 총액은 504억 1173만원이었고, 국회의원 총원 300명 가운데 후원회를 두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비례대표) 의원은 모금액 산정 명단에서 제외됐다.

◇전년에 비해 122억 증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1인당 평균 1억753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 1억6432만원, 정의당 1억5563만원, 옛 통진당 1억2230만원 등의 순이었다.

후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의원은 새누리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으로 3억1000만원을 받았다. 반면 가장 적은 후원금을 받은 사람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광산 을) 의원으로 1700만원이었다.

◇광주·전남 2억이상 8명=광주·전남 국회의원의 19명 중 지난해 가장 후원금을 많이 받은 의원은 강기정(광주 북구 갑) 의원으로, 3억64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체 의원 중에서도 가장 많았다.

박지현(목포) 의원은 2억9448만원, 이운석(무안·신안) 의원은 2억6737만원으로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동철(광주 광산 갑) 2억6552만

원 ▲박주선(광주 동구) 2억5000만원 ▲김성곤(여수 갑) 2억4700만원 ▲장병완(광주 남구) 2억380만원 ▲김승남(고흥·보성) 의원이 2억15만원 등으로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후원금 2억원을 넘긴 의원은 8명이었다.

박해자(광주 서구 갑)·임내현(광주 북구 을) 의원은 1억9000여만원을, 우윤근(광양·구례)·오병운(서구 을) 의원은 1억7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황주홍(장흥·강진·영암)·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1억5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고, 이정현(순천·곡성) 의원이 1억49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의원은 1억3700여만원을, 주승용(여수 갑) 의원은 1억6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고, 신정훈(나주·화순) 의원과 권은희(광주 광산 을) 의원이 각각 9300여만원, 1700여만원으로 1억원을 넘기지 못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4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상위 10위

순위	의원명	지역	모금액 (만원)
1	김재원	경북 군위·의성·청송	310,000,000
2	김승남	고흥·보성	215,000,000
3	김동철	광주 광산 갑	265,520,000
4	박주선	광주 동구	250,000,000
5	장병완	광주 남구	238,000,000
6	김정현	전남 순천·곡성	149,000,000
7	박지현	전남 목포	294,480,000
8	이운석	전남 무안·신안	267,370,000
9	김영록	전남 해남·완도·진도	137,000,000
10	주승용	전남 여수 갑	160,000,000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순태 칼럼

지난 토요일 광주시립미술관에 갔다. 고 최중섭 (1938~1992) 회고전을 보기 위해서다.

문득 공평했던 1960년대에 주막 '도깨비대학'에서 최중섭을 자주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해님이 무렵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옆구리에 자리 잡은 '오센집'에 가면, 어김없이 양수아 화백과 그 제자 최중섭을 비롯해서, 황영성·오승운·김중일·우재길·강연균 등 가난한 화가들이 막걸리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다.

최중섭은 우리 지역 추상미술의 1세대인 양수아·강용운의 뒤를 이은 2세대 구상화가다. 그는 서울의 '오리진', 부산의 '혁(赫)'에 이어 1964년 광주에 현대작가그룹 '에보끄'를 창립한 이후, 평생 이 지역에 추상미술을 토착화하는데 노력했다.

또한 남부현대미술제, 광주-요코하마 현대미술전을 비롯 유럽과 세계 여러 나라 국제교류전에 참여하는 등 현

식을 잃기도 했다.

그렇게 그는 병실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고통을 참으며 연작 50점을 남겼다.

나는 오랫동안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라는 그림 앞에 경건하게 마음을 여미고 서 있었다. 그의 지고지순한 아내 사랑과 견고한 예술혼 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오롯이 색깔에 담았다. 빨강, 파랑, 노랑, 주황, 검정으로 아내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정적이고 동적인 여러 가지 형태로 함께 해 온 삶의 시간들을 표현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술가들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괴짜들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

그것은 오해다. 개성이 강해 자기중심적이며 현실타협적이지 못한 이상주의자라고 해야 옳다.

이상 속에 살기 때문에 조금은 비정리 나라 국제교류전에 참여하는 등 현

그림으로 노래한 사부곡(思婦曲)

대미술운동을 주도해왔다.

내가 특별히 최중섭 회고전 코리아 판타지를 관람한 것은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아내를 위해 그린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연작을 보기 위해서였다. 이 연작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23년 만에, 이번 회고전을 통해 알려졌다.

그는 체중감 말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남은 생애 마지막 생명이 연소될 때까지, 오로지 아내를 위해 100점을 그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연작을 그리기 시작했다.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아내만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린 것이다. 투병으로 눈을 뜰 기력조차 없이 기진맥진해지면 진통제를 맞고 겨우 의식을 찾아 잠깐씩 눈을 뜨곤 했다. 보조침대 옆 침상을 작업대로 삼아, 눈을 감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술혼을 불태운 것이다.

그는 평생을 고생스럽게 살아온 아내에 대해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신훈 초 처가살이를 하면서도 아내 정인순 씨를 그에게 작업실을 만들어주기도 했었다. 그 보답으로 그림 단위 통합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연구원 기능 강화, 안정적 운영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랑만은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화가들이 많다. 특히 사갈과 모딜리아니 부부 사랑은 유명하다. 22살 때 9살 아래인 13세 벨라를 만나 사랑에 빠진 사갈은 아내를, 예술세계를 완성해가는 최고의 동반자 연인으로 생각하며 살았다.

모딜리아니의 아내 사랑도 유별했다. 그의 아내 에뮬레론은 모딜리아니가 사망한 이틀 후,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 둘째를 임신한 몸으로 자살했다.

이밖에 람브란트와 아내 사스키아, 루벤스와 엘렌 부부도 절절한 사랑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중섭의 아내 사랑도 남달랐다. 6.25 때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내 혼자 떨어져 살면서, 아내 마사코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은박지 그림 <가족>에 그의 사랑이 보인다.

강건에 유배되어 있을 때 아내에게 바친 다산의 <사부곡>이 떠오른다. 꿈속의 아내에게 / 하룻밤 새에 진 꽃잎이 천 조각도 넘고 / 산비둘기 어미 제마는 집 위를 나는데 / 외로운 나그네는 돌아간다는 말 못하니 / 언젠그대와 함께 비단금침을 펴리 / 그리워 말자, 다시는 그리워 말자 / 서글픈 꿈속에서 본 그리운 얼굴 / <소설가>

전남도 '퇴근 알람' 올려 야근 폐단 없앤다

직장문화 개선안

앞으로 전남도 과장(서기관급) 이상 간부가 업무지시를 할 때는 업무방향, 용도, 보고시한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간단한 보고는 SNS나 메로 등으로 해도 되며, 직원들은 연 1회 이상의 의무적으로 3일 이상 전문교육기관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3일 "밝고 긍정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 소통 강화, 직장 내 관행 개선, 가정과 일 양립 등을 원칙으로 해 각종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실국별 팀워크 향상 훈련, 도청 가족 공무원 어울림 한마당, 동료사랑 캠프 등이 운영되며, 습관적인 야근 폐단을 없애기 위해 퇴근 알람 울릴 예정이다. 화요일은 문화의 날로 운영하고, 실무 훈련을 줄이기 위해 간부가 업무지시를 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해 업무 효율 증진으로 일하는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징검다리 휴일, 기념일 등은 계획적인 연가 사용을 권장하고, 장기제직 공무원에게는 장기제직특별휴가나 '데미가 있는 행복연가'를 보내준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3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역개발·성장동력 연구위해

광주·전남 발전연 통합해야"

광주시·전남도 공동 공청회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상발전 의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시도발전연구원 통합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3일 공동으로 마련한 통합 관련 공청회에서 토론회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구길용 광주·전남지역협회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합 찬성측인 이정록, 나주용 전남대학교수는 "인접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광역단위 개발계획 수립이 바람직하다.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대중국 도시와의 경쟁 등을 위해 싱크탱크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은 양 연구원의 통합 필요성과 타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미래성장동력의 융합 연구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양승주 목포대학교수와 박종찬 광주대 교수는 "양 연구원 통합은 득보다 실이 많다. 광주는 단일 생활권, 전남은 복수 생활권인 만큼 정책개발과 연구 등도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시도 상상발전은 연구원 통합보다 행정 단위 통합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연구원 기능 강화, 안정적 운영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서화합통합지대 연내 착공하겠다"

이낙연 지사 광양시민과 대화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지부진한 동서화합통합지대 조성사업과 관련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3일 오후 광양시청에서 열린 광양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현안에 대해 전남도 차원의 검토와 지원 의지를 밝혔다.

동서화합통합지대 조성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 중 하나로, 오는 2018년

까지는 32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하동~광양 간 동서통합대교 건설, 섬진강권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협력, 섬진강벨트 복원, 수상 레포츠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광양시와 시민들의 요청에 "올해가 박 대통령의 3년차로, 반드시 올해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백운산국립공원 지정과 관련 서울대, 환경부 등에 올해 지정을 촉구하고,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개발 사업을 전남개발공사에서 맡아달라는 광양시의 건의에 대해서는 전남개발공사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고차이나가 쏜다

2015년 신학기를 맞아 고차이나에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 2월25일까지 사전 등록 시 수강료 10% 할인
- 중국어 시작반 등록생 전원 교재+단어장 무료증정
- HSK 리스타트 2개월 완성반 등록시 2개월 차 수강료 50% 할인 (기간만료 수험표 지참)
- 기존 수강생 특별할인 3월 등록 수강료 20% 할인 [완성과정, 원어민회화과정]

개강 3월 4일(수) **중국어 시작하기 좋은날~**

3월 4일(수요일) 새학기 개강

GO CHINA 스페셜 "2015중국어 완성 프로젝트"

-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입학이 어려워요!
- 영어를 포기하면 취업이 어려워요!
- 중국어를 포기하면 미래가 어두워요!

2015년에는 고차이나에서 중국어를 마스터하십시오! 성공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GO China 중국 전문 인력양성

www.gotochina.co.kr
지금 전화주세요!!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 233-9582 (동) 구오탈리

1636 걸고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검색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YTN
1636 KBS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통신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되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꿈 깬시련" 양미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주)올코리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